유통기한 관리 앱

현재 상황

완제

아빠 왈 : 해당 품목의 가장 최근 유통기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밀가루의 유통기한을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자.

현재 밀가루들이 있고 각각의 유통기한은 다 다르다. A : 4/30, B : 5/30, C : 6/30

이때 나는 A의 유통기한만을 기억하고 이를 어딘가에 기록해둔다. 다른 것들은 신경 x 왜냐하면 어차피 A의 유통기한이 제일 빨라서. 그리고 팔리는 것도 신경안쓴다. 팔렸다는 것은 그 상품의 유통기한을 더 이상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뜻.

4/30일이 되면 모든 밀가루들의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4/30일까지인 밀가루가 있다면 뺀다. 그후 남은 밀가루들 중에서 가장 유통기한이 빠른 날짜만 또 어딘가에 기록한다.

*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를 일일이 관리하고 기억하기 힘들다.

보통 새로운 제품이 들어와서 관리하기보다는 기존에 항상 들어오던 제품의 유통기한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 -> 추가보단 수정작업이 더 많다!!

생지(유통기한이 1~2일 정도인 것들)

현재는 빵을 포장하는 투명 포장지에 표시를 해둠으로써 유통기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아직 괜찮, 점이 두개 찍혀 있다면 오늘 마감 때 빼야 한다.

어떻게 하면 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를 확장해서 재고관리에 관한 것도 해주면 좋을 듯. (scm)  
예를 들어 내가 음식점 사장인데, 항상 일정 양만큼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때 이 어플에 돼지고기와 항상 가지고 있어야할 양, 그리고 돼지고기 거래업체를 등록해 놓는다면 그날 판매한(소비한) 돼지고기양을 입력하면(포스나 판매시스템과 연동된다면 자동으로) 해당 재고가 줄어들고,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거래업체에 주문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면 음식점 사장은 재고관리에 어려움 없이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가게들은 남는 음식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고한다. 남으면 다 버려야되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98492> 이런거 ㄱㅊ은듯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남는 음식(유통기한이 얼마 남지않는 음식)을 할인 해서 팔 때 이를 어플을 통해 홍보하면 유저들이 이를 보고 사러온다….  
아니면 무료나눔 해도 좋을 듯

유사 서비스들

Beep

박스 히어로